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6주년 기념식
제26회 통일언론상 시상식
제32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한국PD연합회 Korean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개회선언

민중의례

제1부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6주년 기념식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
– 46주년 기념 성명
– 기념사

제2부 : 제26회 통일언론상 시상식

– 통일언론상 심사평
– 통일언론상 수상 소감
– 역대 수상작

제3부 : 제32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 수상 소감
– 역대 수상작

별첨

– 1.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 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폐회

– 기념촬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한국PD연합회
Korean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제1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6주년 기념식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문
46주년 기념 성명
기념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자유언론실천선언
(自由言論實踐宣言)

우리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미증유(未曾有)의 난국(難局)을 극복(克服)할 수 있는 길이 언론(言論)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宣言)한다.

민주사회(民主社會)를 유지하고 자유국가(自由國家)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社會機能)인 자유언론(自由言論)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抑壓)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宣言)한다.

우리는 교회(敎會)와 대학(大學)등 언론계(言論界) 밖에서 언론의 자유회복(回復)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覺醒)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自由言論)은 바로 우리 언론종사자들 자신의 실천(實踐)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許容)하거나 국민대중(國民大衆)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自由言論)에 역행(逆行)하는 어떠한 압력(壓力)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自由民主社會) 존립(存立)의 기본요건(要件)인 자유언론(自由言論) 실천(實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宣言)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決議)한다.

1. 신문(新聞), 방송(放送), 잡지(雜誌)에 대한 어떠한 외부간섭도 우리의 일치(一致)된 단결(團結)로 강력히 배제(排除)한다.

1. 기관원(機關員)의 출입(出入)을 엄격히 거부(拒否)한다.

1. 언론인(言論人)의 불법연행(不法連行)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연행(不法連行)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歸社)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

성 명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6주년을 맞아

이 참담한 언론현실 앞에 언론인들이여, 부끄러워 하라

46년 전 오늘 우리는 박정희 유신 독재의 폭압 속에서 질식하고 있던 언론자유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 '자유언론실천선언' 의 횃불을 들어 올렸다. 유신독재가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았는데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대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 성직자들의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언론은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이들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런 침묵과 굴종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46년 전 오늘 들어 올린 '자유언론' 의 횃불은 바로 이 부끄러움에서 출발하였다.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크게 성숙하였고, 언론의 자유도 활짝 피었다. '국경없는 기자회' 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 를 보면 올해 한국의 순위는 조사대상 180개 가운데 42위다. 아시아 권에서는 1위이며, 발표된 순위를 보면 미국(45위) 일본(66위)보다 언론자유가 앞선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는 활짝 피었는데, 언론의 생명이랄 수 있는 언론 신뢰도는 바닥을 헤매이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뉴스 신뢰도에서 한국은 4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불량 제품도 이런 불량 제품이 없다.

한국 언론이 이처럼 참담한 상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가운데 핵심인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사를 쓰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정파나 한 쪽의 주장과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는 것, 이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거짓, 왜곡, 의혹 부풀리기, 정파적 증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저질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이 이렇게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어떤 '비정상의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 씨는 지난봄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한국의 언론은 형편없다. 뉴스를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도무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언론이 이렇게 된 연유로 팩트 체크의 누락, 사실의 과장, 남의 글 베끼는 표절,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사, 언론 윤리의 부재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그 결과 온갖 거짓과 왜곡, 선정, 저질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한국 언론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확성과 공정성이 박제된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인격이 살해되고, 삶이 파괴되는, 그리고 강자와 가진 자, 기득권과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아부하면서 민중의 삶을 외면해 온 것이 한국 언론의 참담한 현주소다.

그런데도 언론인들은 이러한 언론 현실에 대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활짝 핀 언론자유의 크기에 걸맞는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에 조금이라도 도전이나 비판을 하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자기방어와 권리 주장에 급급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얼마나 한국 언론이 무책임하면, 국민들의 81%가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했을까. (미디어오늘이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도 언론을 대표한다는 기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늘 '자유언론실천선언' 4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현역 언론인들에 대해 간곡하게 당부한다. 언론의 기본을 지키고, 언론 본래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지금의 언론 상황에 대해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언론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추락한 한국 언론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되돌리는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0년 10월 23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기념사

자유언론 실천 정신 이어 받아 언론 신뢰회복 실천에 나서자

김 동 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1974년 10월 24일, 엄혹했던 시절 선배님들은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언론 자유에 대한 한줄기 빛으로 희망을 안겼습니다. 만천하에 보여주신 결기와 기백은 억눌린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46년이 흘렀지만 그 때 그 시절의 결기와 기백을 생각하면 절로 숙연해집니다. 척박하고 열악하기만 했던 당시 언론 환경에서 우리의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자유언론실천 선언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오셨던 동아투위 선배님들의 노력이 조금씩 뿌리를 뻗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 국가중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4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통아투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언론 환경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상황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산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국가별 언론신뢰도에서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자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자들 스스로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8월 한국기자협회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자 72.2%가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기자 넷 중 한명(24.8%)이 '잘 모름·무응답'을 택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뢰하는 언론사를 찾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사주들의 협찬성 기사와 광고성 기사 요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과 임금삭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직업 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했고, 급기야 올해는 50% 아래(46.4%)로 내려앉았습니다.

작금의 언론 상황에 대한 해답은 개혁입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능하고, 정치개혁은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개혁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자들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일일이 '가짜뉴스'나 '정파적 보도'를 판단하고 걸러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실천 선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선배들께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앞으로는 언론의 신뢰 회복과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가칭 '언론신뢰회복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선배 언론인들이 기자의, 언론인의 권리를 찾는 실천운동으로 지금의 언론자유 환경을 일구어 내셨듯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독자와 시청자의 언론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운동의 씨앗을 뿌려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자신감. 그것은 동아투위가 개척하셨던 그 노력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동아투위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26회 통일언론상 수상자와 동아투위의 안종필자유언론상 수상자들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제2부

제26회 통일언론상

통일언론상 심사경위

수상소감

역대 수상자(작) 명단

제26회 통일언론상 심사경위

제26회 통일언론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권혁철

심사위원
김환균
배용화
송영재
신학림
양병운
정성욱
정일용
정홍규

올해 통일언론상 출품작은 모두 15건이었습니다. 심사회의에 모인 심사위원들은 먼저 심사 진행 방식과 심사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현행 통일언론상 심사기준(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보도물, 평화통일에 기여한 사회단체와 관계자 선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심사 방식은 각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방식(정량적 방법)과 의제의 파급력, 시의성. 참신성 등을 반영한 방식(정성적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앞서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15건을 평가한 점수를 통일언론상 주관 측에 보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들은 지난해부터 한반도 정세가 싸늘해져 평화통일 관련 취재보도와 기획물 제작 환경이 악화된 점을 짚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관계가 교착됐고, 올 여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 통일언론상 심사를 시작하기 전 몇몇 심사위원은 국내에서 평화통일, 남북화해협력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자칫 통일언론상 출품작의 규모와 내용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란 우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해보니 이는 기우였습니다. 올해 통일언론상 출품작들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였고, 스포츠, 건축, 여행 등 다양한 내용, 참신한 기획이 돋보였습니다. 웹 드라마처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출품작들이 수고와 정성이 담긴 수작들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격의 없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김종일 SBS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최정호 풀끼리프로덕션 대표, 서재호 풀끼리프로덕션 PD)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기획력이 단연 돋보였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방북 취재는 말 그대로 언감생심입니다.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은 외국인 북한 여행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말을 구사하고 한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명이 북한을 방문해, 평양, 금강산 등의 이모저모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방송 트렌드인 예능과 다큐멘터리를 결합해 시청자들에게 북한의 최근 모습을 부담 없이 전달했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북한 여행 프로그램'은 방송 제작의 틈새시장입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 사람을 뺀 외국인은 북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작품이 뭐가 대단하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논의하면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올렸습니다.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콜럼버스에게 몇몇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깍아내렸습니다. 이들에게 콜럼버스는 달걀을 세워 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달걀을 바로 세우지 못하자, 콜럼버스는 달걀 바닥을 살짝 깨뜨려 탁자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람들은 이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대해 콜럼버스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막힌 남북관계 해법으로 북한 개별 관광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실제 북한 개별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이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은 6·15 공동선언 남측위 언론본부 고승우 정책위원장의 '한반도 관련 보도물'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제이원더의 웹드라마 '오늘도 일없습니다'(남택진 PD, 이진성 PD, 윤승희 작가, 송혜진 작가)를 각각 특별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승우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통일뉴스〉에 국가보안법 관련 32회 연재와 각종 매체에 기고한 기사 66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한미동맹 정상화 방안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및 책무 등을 역설해왔습니다. 고승우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 과정에서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군사적 주권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킬 때 가능한데, 이는 대중매체가 국가보안법, 한미동맹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고승우 정책위원장이 1980년 8월 광주항쟁 관련 제작 검열 거부로 합동통신(연합통신 전신)에서 강제해직된 뒤,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온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탈북민 가족의 남한 정착을 다룬 웹드라마 '오늘도 일없습니다'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탈북민 정착 문제를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유쾌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탈북민 연기자

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10,20대가 많이 보는 웹 드라마란 형식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웹드라마는 연애, 사랑을 주제로 한 상업 로맨틱 코미디물이 많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젊은 층이 친숙한 웹드라마를 통해 남북 통합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한 나머지 12건도 모두 알찼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분단, 통일을 다룬 KBS의 '한국체육 1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2부 올림픽 아리랑 남과 북'은 남북 단일팀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립과 공존이란 남북관계를 스포츠란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EBS의 '탈북청소년 교육실태 심층기획보도-두번 버림받은 아이들'도 탈북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EBS 건축탐구 집-통일을 꿈꾸는 공간'은 건축을 통해 통일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해 신선했습니다. 추상적인 통일이 아닌 삶의 근원인 '집'을 통해 남과 북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23일

제26회
통일언론상 수상자

[대　상]

SBS 김종일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풀끼리프로덕션 최정호 대표,
서재호 PD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

[특 별 상]

6·15 공동선언 남측위 언론본부
고승우 정책위원장
'한반도 관련 보도물'

제이원더 남택진 PD(프로듀서),
이진성 PD(연출),
윤승희·송혜진 작가
'웹드라마 〈오늘도 일없습니다〉'

대 상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

김 종 일
SBS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최 정 호
풀끼리프로덕션 대표

서 재 호
풀끼리프로덕션 PD

수상 소감

10%로의 가능성에 도전하다.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은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5명의 북한 여행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SBS 제작진을 비롯한 단 한 명의 전문스태프도 동행할 수 없었다. 오로지 교포가이드의 인솔하에 이방인 5명만이 북한에 들어가 촬영과 연출을 해 온 셈이다. 그 중 한명이 카메라를 좀 다뤄본 경험이 많았을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10%로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내다봤었다. 이 기적 같은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해준 외국인 친구들의 용기에 먼저 감사 와 찬사를 전하고 수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

200%를 준비했는데..
북한에 외국 연예인 5명만 보내놓은 제작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교포가이드와 연락하는것도 불가능한 상황. 물론 미리 계획한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장면을 촬영해야하는지는 사전 회의를 제법 세밀하게 하고 갔다. 하지만, 계획된대로 촬영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예기치 않은 실수나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면 여행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방송이 펑크날 정도의 촬영 분량만을 가지고 돌아올 가능성

도 염두에 두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놓고 거의 또 다른 프로그램 한편을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예비 에피소드들을 준비한 우리 제작진들은 샘 해밍턴과 친구들이 가지고 귀환한, 예상보다 150% 많은 촬영 분량을 보고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해야만 했다. 본방에서 어쩔수없이 잘려나간 예비 에피소드들의 출연자와 제작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이 상의 일부는 그들의 것임을 밝히고 싶다.

〈코로나19〉가 반통일이다!

기성세대는 그리움이든 적대감이든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 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북녘친구들에게 '무관심' 이 대세처럼 보인다. 상당수의 젊은 친구들은 무관심을 넘어 북녘동포들을 '원치않는 통일 시대' 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의가 있을 때 일부 젊은이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들에게 섯불리 통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 통일 보다는 교류하고 협력이 먼저다. 만나고 부딪히고 싸우로 화해하고 이해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통일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올해는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 시즌2로서 백두산과 개마고원 캠핑을 계획했었다. 남한 사람이 못가면 남한을 경험한 외국인의 시선으로라도 북한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쉽다. 〈코로나19〉가 반통일이다.

꼭 가보고 싶다.

'무모한 기획력' 말고는 별다른 특장점 없는 이 프로그램에 큰 상을 안겨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사실 이번 여행에 어떻게든 직접 참여해 북한에 가보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북한 여행은 피디로서 마지막 호기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고싶어도 갈수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 그것도 바로 지척에 두고… 꼭 한번은 가보고 싶다. 그때까지 〈페이스北〉은 계속 될 것이다. 이 상으로 더 없이 큰 용기를 얻었기에…

SBS 남북교류협력단 김종일 PD

특별상

'한반도 관련 보도물'

고 승 우
6·15 공동선언 남측위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수상 소감

귀한 상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론 경력 45년 되는 해에 상을 신청하게 된 것은 모두 함께 대화할 기회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한미동맹, 국보법에 대한 것입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언론은 한미동맹의 구조적 갑을관계를 외면하면서 국보법으로 일상화된 자기검열을 불편해 하지도 않고 언론자유를 논합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이후 집권층 내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 비핵화, 군사, 경제 분야 등에서의 전면적인 협조에 합의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조차 미국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찰떡같았던 한미공조가 예전 같을 수 없는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한중 경제관계가 한미의 그것보다 더 커진 것 등 동북아 지각변화가 큰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뿌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지면서 미국에게 슈퍼 갑의 위치를 부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6년 차지철 당시 공화당 의원 등이 미국의 군사적 전횡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조약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권리(right)를 한국이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한국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SOFA가 나왔고 이 SOFA에 근거해 주한미군방위비분담

금협정(SMA)이 만들어졌습니다. 평택미군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이고 용산미군기지 오염 등에 미군이 책임지지 않으며, 세균전에 쓰이는 탄저균이 부산 미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것도 이 4조 때문입니다.

이 4조는 경북 상주에 미국무기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나 미국의 대북 전략에 선제공격 카드를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고 최근 미국 첨단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수시로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주의 사드는 중국이 자국 안보를 해친다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 경제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거나 종전선언을 촉구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우호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 요구를 한 국제법적 근거도 이 4조라 할 것입니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최근 자신의 신간 〈격노〉에서 미국이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80개의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이 4조 때문에 가능하다는 추정이 가능한데도 일부 언론이 영문법을 따지다가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외면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언론은 필리핀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이나, 한미의 것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는 미일 안보조약을 두루 살펴 한미동맹 정상화 필요성을 국내외에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보법입니다. 이 법은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 등이 이 법의 폐기를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법은 민족의 사활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적극 고민하고 대처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적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옛 소련 등의 국가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이 자명해진 오늘날에도 이 법은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미래학이 황무지상태로 방치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상을 통제하면서, 열린 사고를 생명수로 하는 진보세력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상상력을 자원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국내외의 건전한 여론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책무인데도 우리 언론은 한미동맹, 국보법에 의해 축소되고 기형화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전환기에 언론이 방향타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진보, 보수언론이 대동소이합니다. 진보와 보수 언론이 균형을 이룰 때 국가, 사회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언론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파성,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대담론과 의제 발굴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지적한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완성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상

‘웹드라마 〈오늘도 일없습니다〉’

남 택 진
제이원더 PD(프로듀서)

이 진 성
제이원더 PD(연출)

윤 승 희
제이원더 작가

송 혜 진
제이원더 작가

수상 소감

‘어느 날 당신의 옆집에 탈북 가족이 이사온다면?’ , 기획 초기의 우리의 화두였다. 처음엔 탈북 가족의 초기 남한 정착기를 제대로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다. 한 가족의 초기 남한 정착 사례를 통해 멀지 않은 통일 시대–이 작품을 기획하던 2018년말, 2019년초만 하더라도 통일이 손에 잡힐 듯 곧 다가올 미래로 느껴졌다–를 미리 엿보고, 탈북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고 싶었다.

우리가 통일이나 북한 주제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8년 3월 창업 직후부터 우연찮은 기회에 북한 관련 숏폼 콘텐츠를 다수 제작하게 되면서였다. 남북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차이를 배우는 남북 생활어사전 80편 제작을 비롯해 남북 교육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이나 음식과 휴먼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오늘날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북한 관련 네트워크도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 출연할 탈북 가족을 섭외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 탈북사례가 많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카메라 앞으로 불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이야기를 담을 그릇을 바꾸자는 것,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웹드라마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젊은 시청자들에게 통일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거라

는 기대가 있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기획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우리 드라마의 제목인 〈오늘도 일없습니다〉의 "일없습니다"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고치는 말로, "괜찮습니다"는 뜻이지만 거절의 의미로 오해를 사서 소통에 문제를 빚곤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제목은 물론 각각의 에피소드는 탈북민 10인 이상을 직접 대면 취재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 초기에 겪은 이야기들을 녹여냈다. 또한, 탈북민 역할의 배우들은 실제 탈북자 출신의 배우들로 캐스팅해 국내 최초로 탈북민 연기자가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기했다. 이는 자극적인 뉴스로 북한 이야기를 소비하는 많은 방송 토크쇼에서 보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연기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낯선 북한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장점과 함께 드라마 전체 12회의 매회 끝에 1분 코멘터리를 넣어 배우들이 직접 겪은 탈북 스토리와 남한 정착기를 실감 나는 인터뷰로 담아 웹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조화시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

사실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에피소드를 대본화 (기획자도 작가도 교양·다큐 제작 출신)하는 과정, 그리고 적은 제작비로 인한 열악한 제작 환경, 비연기자 출신 탈북 배우 등 이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드라마가 완성된 후에 찾아왔다. 10-20대 젊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아이돌이 출연하거나 연애와 사랑을 소재로 한 상업적 로맨틱 코미디가 주를 이루는 웹드라마 시장에 우리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결국은 돌고 돌아 국내 대형 배급사에 유통을 전담시키는 계약을 하고서야 국내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두려웠던 것은 우리의 노력-통일과 같은 큰 담론을 우리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웹드라마로 제작-이 한 번의 시도에서 그치고 끝날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는 또 한 번의 꿈을 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다. 아니 용기를 얻었다.
탈북가족 남한 정착기 시즌1 〈오늘도 일없습니다〉의 후속 이야기를 만들 용기, 시즌1이 탈북민의 취업 및 초기 정착을 다룬다면 시즌 2는 〈우리 산보(데이트)할까요?〉 남남북녀의 연애이야기를 통한 서로의 문화 이해, 시즌 3는 〈남남북녀-탈북가족 사돈 맺기〉로 이야기를 확장해보고 싶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온 통일의 시대, 탈북 가족의 좌충우돌, 고군분투 남한 정착기를 통해 언젠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남북의 삶을 미리 예행연습 해보는 재미있고, 유쾌한 웹드라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상이 기성 미디어 이외에도 뉴미디어로의 통일 소재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이원더 남택진 PD(프로듀서)

통일언론상 역대 수상자(작)

〈제1회〉 대 상 : CBS ‘통일로 가는 길’ 제작진

〈제2회〉 대 상 : 정길화·김환균(MBC ‘PD수첩’ PD) / 정연주(한겨레신문사 기자, 워싱턴특파원)

〈제3회〉 대 상 : 한겨레신문 ‘아 굶주리는 북녘’ 특별취재팀
특별상 : 정수웅(다큐서울 PD) / 박창순·류현위(EBS ‘통일로 가는 길’ PD)

〈제4회〉 대 상 : 정일용(연합통신 남북관계부 기자) ‘안기부, 북한 원전 인용보도 문제 없다’
특별상 : 권문혁·김영호·이용식(MBC ‘PD수첩’ PD)

〈제5회〉 대 상 : 안택호·김환균(MBC PD) ’ 특사, 그래도 남은 문제’
특별상 : 손석춘(한겨레 여론매체부장) – 손석춘의 여론읽기 한겨레신문 칼럼 ‘한국 언론운동의 논리’ 저서
박휘서(KBS PD) – ‘특별생방송 남과 북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제6회〉 대 상 : 최영준·이광조·김용신(CBS PD) – ‘2000년 남북평화 만들기’
특별상 : 이채훈(MBC PD) – ‘MBC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5편 여수 14연대 반란’

〈제7회〉 대 상 : 김남태(여수MBC PD) – ‘아직도 못 다 부른 노래’
특별상 : 강지웅(MBC PD)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푸에블로 나포사건,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이광조·박철(CBS PD) – ‘함께 사는 연습’

〈제8회〉 대 상 : 방성근·최원석·임정아(MBC TV제작2국 PD) – ‘2002 평양특별공연’
특별상 : 한민수외 8인(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 – ‘한국전쟁당시 한국군인 및 경찰의 민간인 학살’
문영식 외(연합뉴스 민족뉴스 취재본부) – ‘북한어휘사전·북한연감·기타간행물’

〈제9회〉 대 상 : 이채훈·김상균·배연규·이선태(MBC PD) – MBC 정전50주년 특별기획 ‘끝나지 않은 전쟁’
특별상 : 송정록(강원도민일보 기자) –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남북강원교류’
이욱정(KBS PD) –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국방비 증액, 군축은 불가능한가’

〈제10회〉 대 상 : EBS 오한샘·성기호·김동렬 PD – ‘코리아 코리아’
특별상 : MBC 유현 차장 – ‘1994년 그 해 여름 조문파동과 공안정국’
여수MBC 김남태 부장 – 여수MBC 창사34주년 라디오 특집 다튜멘터리 ‘가슴속에 묻은 노래 山洞哀歌’

〈제11회〉 대 상 : SBS 제작본부 박기홍 PD – ‘나는 가요 – 도쿄, 제2학교의 여름’
특별상 : SBS 제작본부 오기현 PD – ‘조용필 평양에서 부른 꿈의 아리랑’

〈제12회〉 대 상 : KBS 공영철PD – ‘KBS스페셜–현지르포 2006 북한,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가’
특별상 : 마산MBC 김 현 보도국 기자 – 특집 다큐멘터리 ‘윤이상, 하늘에 새긴 선율’

〈제13회〉 대 상 : KBS 나상엽 PD·장영복 조선중앙방송 연출가 ‘사육신’

〈제14회〉 대 상 : 진주MBC 심길보 PD – 진주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HD다큐멘터리 ‘빨치산’ 2부작
특별상 : KBS 윤성도 PD – KBS스페셜 2008 북한 식량위기 ‘굶주림의 정치경제학’

〈제15회〉 대 상 :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한겨레 기획 연재물 '냉전의 추억'

〈제16회〉 대 상 : EBS 김한중 PD – 지식채널e '통일합시다, 저는 북한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원, 고무신'

〈제17회〉 대 상 : 해당작 없음
특별상 : 한겨레신문 송경화 기자 – '탈북자의 아메리칸 드림' 4부작
KBS제주 강인창 PD – '4·3 의인 김익렬'

〈제18회〉 대 상 : 해당작 없음
특별상 : EBS 다큐프라임 – '탈북, 그 후'

〈제19회〉 대 상 : KBS 남진현PD –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특별상 : CBS 오현숙 PD – '정전 60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전병역·손제민·송윤경·심혜리 경향신문 기자 –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제20회〉 대 상 : 뉴스타파 최승호PD, 정유신·오대양·최형석 기자 –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보도'
특별상 : 오마이뉴스 신은미 기자 –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제21회〉 대 상 : 해당작 없음
특별상 : 제주MBC 김지은 PD – 특집다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EBS 이상범 PD – '통일채널e' 6부작

〈제22회〉 대 상 : 뉴스타파 박정남 독립PD – '목격자들–개성공단 2부작'
특별상 : EBS 정성욱·김병완·김성목 PD, 이혜진 방송작가 – '딱 좋은 친구들'
울산MBC 이영훈 PD – '돌직구40–신불산 빨치산을 말하다'

〈제23회〉 대 상 : KBS 양승동·최진영 PD – 〈KBS스페셜〉 '오래된 기억,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상 : SBS 배정훈 PD – 〈그것이 알고 싶다〉 '도둑골의 붉은 유령'

〈제24회〉 대 상 : SBS 오기현·이윤민 PD 'SBS스페셜 –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세대'
특별상 : 내일신문 김기수·김상범·정재철 기자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20회 연속기획'
KBS 구상모 PD 'KBS 특별다큐멘터리 – 우리가 태어난 곳'

〈제25회〉 대 상 : KBS 유재우 PD 'KBS스페셜 – 어느 편이냐 묻는 당신에게'
특별상 : G1강원민방 김태정·조민경PD 'DMZ 스토리'

〈제26회〉 대 상 : SBS 김종일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풀끼리프로덕션 최정호 대표, 서재호 PD –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
특별상 : 6·15 공동선언 남측위 언론본부 고승우 정책위원장 – '한반도 관련 보도물'
제이원더 남택진 PD(프로듀서), 이진성 PD(연출), 윤승희·송혜진 작가 – '웹드라마 〈오늘도 일없습니다〉'

제3부

제32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경위

수상소감

역대 수상자 명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제32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경위

제29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안기석 (새언론포럼 회장)

심사위원
임나혜숙 (새언론포럼 부회장)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조강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이번 제32회 안종필 자유언론상으로 추천된 후보는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사무처장, 경향신문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조현호 미디어오늘 선임기자, 봉지욱 JTBC 기자,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뉴스타파의 '국회 세금도둑' 제작팀,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 언론노조 사무처 등으로 모두 9건이었습니다. 추천 받은 후보자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그늘을 밝히고 숨겨진 진실을 알리거나 건강하고 올바른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분들이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위원회는 올해가 '조선 동아 거짓과 배신의 역사 100년 청산'의 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보를 찾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후보들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안종필 자유언론상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 기여한 후보를 선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심사위원들은 본상으로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를, 특별상으로 뉴스타파의 '국회 세금도둑' 제작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상을 수상하게 된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는 한겨레 칼럼과 한겨레티브이(TV)의 '김이택 저널어택' 등을 통해 철저한 팩트에 기반한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수구 언론과 수구 보수 세력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통렬하게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100년을 맞는 조선 동

아의 친일 독재 부역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는 모습에 대해 칼럼과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언론이 공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개혁을 꾸준히 제기해온 공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뉴스타파의 '국회 세금도둑' 제작팀은 탐사보도의 모범을 보여준 수작을 선보였습니다. 뉴스타파 제작팀은 막대한 세비가 사용됨에도 대부분의 예산 지출 내역이 비밀로 감춰졌던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장기적인 탐사보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동안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 제기, 자료 입수와 분석, 검증 취재를 통해 100건이 넘는 기획물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그동안의 취재 결과를 갈무리한 '국회세금도둑 3년 추적기-의원님과 인턴'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국회 예산 오남용 실태를 파헤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취재의 결과로 국회 개혁이란 의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중에는 이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조차 내팽개치고 가짜뉴스의 흙탕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클릭수 절대주의'에 정신을 잃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반응은 불신을 넘어서 '폐간'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밝혀내고 진실을 향해 왜곡된 언론 지형을 바로 잡으려는 살아있는 언론인들이 있기에 여전히 한국 언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참된 언론자유의 정신과 저널리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 언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후보로 추천받은 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자유롭고도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하여 건강하고 튼실한 민주주의를 일구어 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제32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자

[본 상]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

[특 별 상]

〈뉴스타파〉 '국회 세금 도둑' 제작팀
(박중석, 최윤원, 임선응, 연다혜, 강현석,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등)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본 상

김 이 택
한겨레 대기자

수상 소감

과분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유언론·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이라 더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배님들이 지켜주신 자유언론, 민주언론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확산은 기성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 존재 의미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기자보다 기레기란 말이 더 많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말도 안되는 편향보도·왜곡보도가 여전히 대문짝만하게 지면을 장식하고 온라인과 유튜브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 탁류의 한 복판에서 양심적인 언론·언론인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올해초 100년을 맞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사 앞에서 1인시위 하시는 선배님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선배님들이 앞장서고 민주시민들이 힘을 합쳐 언론자유와 민주언론을 쟁취했더니 그 열매를 따먹고 몸집을 불린 건 독재에 영합해 왜곡·편파보도를 해온 거대언론, 족벌언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언론 권력' 행세를 한 지는 이미 오랩니다. 〈한겨레〉는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를 장기 연재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뒤늦게 법에 정해진대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족벌언론'은 〈한겨레〉 등을 공격하는 보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게 언론권력 시리즈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겨레TV〉에서 '저널어택'이란 프로를 하게 된 것은 20년 전과 언론지형, 언론환경이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10년 전 종편을 4개사나 무더기 허가하는 바람에 언론 운동장은 한쪽으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족벌언론의 언론권력적 행태 역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년 사이 뉴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종편들이 매출을 4배 가까이 늘리면서 방송의 공공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 언론들이 생산하는 왜곡·편파보도는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로 재생산·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언론의 신뢰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할 것 없이 중요 사안마다 족벌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언론 전체가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고, 신뢰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모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계의 언론개혁 요구는 공론장이나 정치의 장에서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역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주 신문으로 탄행한 한겨레의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수상 소식을 접하고 고민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이 상의 권위에 누가 되는 건 아닌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해보라는 뜻으로 알고 용기내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는 날까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특별상

〈뉴스타파〉 '국회 세금 도둑' 제작팀
(박중석, 최윤원, 임선응, 연다혜, 강현석,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등)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수상 소감

1987년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던, 개혁의 요구도 받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합니다. 한 해 40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 심의 권한도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1인당 연간 3억여 원의 세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세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인데도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배정된 예산은 누구도 감시할 수 없는 일종의 '성역' 이었습니다. 마치 정보기관처럼 국회는 대부분의 예산 지출 내역을 비밀로 감췄습니다.

2017년 4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대한민국 국회의 이런 비밀주의를 깨기 위한 미증유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국회 세금도둑 추적〉.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공헌해 온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획회의 끝에 '국회 정책개발비 검증' 이란 의제를 설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라며 시민이 모아준 세금을 국회의원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국회 정책개발비가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대로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를 상대로 2017년 4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지원된 예산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가 먼저라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는 A4 용지 기준 무려 9만 장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9만 장에 이르는 자료를 모두 분석해 순차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20대 국회의원 71명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입법정책개발비 오남용' , 이 체계와 시스템을 통째로 고발한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증과 취재를 반복해 온 지난 3년은 국회의 그릇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낭비된 세금을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감춰졌던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위기 속 〈국회 세금도둑 추적〉이 숭고한 자유언론에 이르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역대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자 명단

〈제1회〉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 – '보도지침' 폭로

〈제2회〉 부산일보 노조 – 편집권 독립운동

〈제3회〉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 – 언론노조운동 주도

〈제4회〉 김중배 동아일보 편집국장 – 편집권 독립 주장

〈제5회〉 MBC노동조합 – 공정방송 쟁취 50일 파업

〈제6회〉 한겨레신문 편집국 – 국민주신문 창간과 정론직필

〈제7회〉 충청일보 편집국 – 언론 공기능 수호

〈제8회〉 최문순 전 MBC노조위원장 – MBC의 민주화 위한 노조 활동

〈제9회〉 수상자 없음

〈제10회〉 홍건표 전 AP통신 서울특파원·정호상 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
심재훈 전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Don Oberdorfer 전 워싱턴포스트 서울특파원
– 1974~1975년 한국의 자유언론운동을 적극적으로 취재보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

〈제11회〉 바른지역언론연대 – 풀뿌리 지역신문 활성화를 통해 언론민주화에 기여

〈제12회〉 KBS '추적60분' 제작팀(1999년 10월 ~ 2000년 10월)
–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침

〈제13회〉 MBC '미디어비평' 팀(2001년 4월 ~ 2001년 9월)
– 언론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언론민주화에 기여함

〈제14회〉 본 상 : 유상하·김재용(MBC 보도국 사회1부 기자) –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서해교전 관련 보도
특별상 : 한민수 외 8인(국민일보 사회부 사건 팀)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과 군사정권 의문사

〈제15회〉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팀 황용호 외 15인(KBS)
–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 정치자금, 판도라의 상자, 일제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 최후의 망명객들, 국가보안법 등〉

〈제16회〉 본 상 :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특별상 : 정길화, 김영호, 김환균, 박정근, 유 현, 이채훈, 장형원, 한학수(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17회〉 본 상 : 손석춘(언론인)
특별상 : 민족문제연구소

〈제18회〉 본상 : 시사저널 기자 일동

〈제19회〉 본 상 : KBS 미디어포커스 팀
특별상 : 신학림(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제20회〉 본 상 : 경향신문 편집국
특별상 : YTN노동조합 / 아프리카

〈제21회〉 본 상 : 최상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특별상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제22회〉 본 상 :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제작팀

〈제23회〉 본 상 : 시사주간지 〈시사IN〉 편집국

〈제24회〉 본 상 :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제작진

〈제25회〉 본 상 :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연속 단독보도〉
특별상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제26회〉 본 상 : 한국방송(KBS) 보도본부 인사검증 TF
– 김귀수, 이병도, 정수영, 김연주, 홍성희 기자

〈제27회〉 본 상 : 미디어오늘

〈제28회〉 본 상 :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제작팀
특별상 :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

〈제29회〉 본 상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
특별상 : 김민식 MBC PD, 이용마 MBC 해직기자

〈제29회〉 본 상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
특별상 : 김민식 MBC PD, 이용마 MBC 해직기자

〈제30회〉 본 상 : MBC 〈PD수첩〉 조계종 2부작, "큰 스님께 묻습니다",
강지웅 부장, 박건식, 한학수, 강효임 PD, 정재홍 작가
특별상 : 박진수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제31회〉 본 상 :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제작진
제작 : 김양순, 연출 : 은준수, 송수진, 신지원, 취재 : 최경영, 김빛이라, 김덕훈 등
특별상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제32회〉 본 상 :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
특별상 : 〈뉴스타파〉 '국회 세금 도둑' 제작팀
(박중석, 최윤원, 임선응, 연다혜, 강현석,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등)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별첨 1]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전 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 · 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 · 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 · 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총 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 '남측')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북측')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 · 제작함으로서 남북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 · 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 · 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 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 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 · 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 · 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남북 언론인 간 합의사항에 유의 : 기사 작성 · 보도 시 남북 언론인 간 합의사항에 유의한다.(참조 : 2006, 2007, 2008년 합의문)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 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 · 방송 · 통신 보도와 장비 등 1차 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 · 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 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시 형식적 · 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 프로그램 편성 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화해 · 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 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존엄성 존중, 민족 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 · 가곡, 드라마, 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 · 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 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 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 · 콩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 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 · 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시 정보의 편중성 · 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 차이 이해 노력 : 언어, 문화, 생활, 관습, 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를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 · 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1995. 8. 15 (제정)

2017. 10. 24 (개정)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별첨 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동아투위 위원 113인

강정문 권근술 김덕렴 김두식 김성균 김유주 김인한 김진홍 김창수
박노성 배동순 성유보 송재원 신태성 심재택 안병섭 안상규 안성열
안종필 오정환 우승용 이계익 이병주 이의직 이인철 조민기 조성숙
조양진 홍선주 홍종민 홍휘자 (이상 고인 31분)

강운구 고준환 국흥주 권도홍 권영자 김기경 김대은 김동현 김명걸
김민남 김병익 김순경 김양래 김언호 김영환 김욱한 김재관 김종철
김창선 김태진 김학천 남기재 맹경순 문영희 박경희 박순철 박종만
박지동 서권석 서창식 송경선 송관률 송준오 신양휴 신영관 신정자
신해명 심정섭 양한수 오봉환 유영숙 윤석봉 윤성옥 윤활식 이경자
이규만 이기중 이길범 이동운 이명순 이문양 이부영 이영록 이재민
이종대 이종덕 이종욱 李宗郁 이지선 이태호 이해성 임부섭 임수진
임응숙 임채정 임학권 장윤환 정동익 정연주 정영일 정흥렬 조강래
조영호 조학래 최남경 최학래 한현수 허 육 홍명진 황명걸 황윤미
황의방 (이상 82명)

명예위원 13인

고 천관우 위원(전 동아일보 주필)
고 송건호 위원(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한국명 진필세)
백기완 선생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홍건표(AP통신)
정호상(아사히 신문)
다메다 에이이찌로(아사히 신문)
오구리 게이따로(아사히 신문)
에자와 고지(교도 통신)
오노다 아끼히로(교도 통신)
후루노 요시마사(마이니찌 신문)
(이상 13명)